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 사사기 13:10-23

- 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 12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 13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 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는 것이니라 하니라
- 15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 16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 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 18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 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 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 20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 21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 22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 23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다시 나타난 천사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천사가 한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번에도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밭에서 일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급히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마노아는 천사에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그에게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천사는 그 아내에게 말한대로 아이는 나실인의 규정을 지킬 것이고 아이의 엄마는 포도나무 소산과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노아는 당신이 한 말이 실현될 때 사례하겠으니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어찌 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해줘도 모른다는 뜻이지요.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를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나타난 천사를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노아는 천사에게 염소를 잡아 대접할테니 잠시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사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꽃이 솟아 오르고 천사는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 부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만난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파송 받은 사자입니다. 천사를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을리가 있겠느냐?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보이셨으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다독임을 가장한 핀잔을 주었습니다.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나 천사를 선지자로 오해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마노아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신앙을 공식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죽게 된다는 법칙, 즉 율법을 넘어서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광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도권 다툼

지난 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확실히 마노아보다는 그 아내가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마노아의 어리석음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마노아는 하나님께 천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들을 그의 아내에게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한테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아닌 가장인 자신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칠지, 그 외에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천사에게 이름을 묻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남편인 자기를 두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찾아간 천사에게 이 집안의 가장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자신과 천사와의 관계를 자신이 주도하기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좀처럼 마노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도 천사는 그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해서 마노아에게 별 다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노아는 천사로부터 내 이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당했고 식사 대접도 거절당했으며, 천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자기 아내로부터 핀잔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마노아는 천사로부터 원래는 자신을 찾아오려다가 잘못해서 자기 아내를 찾아갔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겠지만, 오히려 애초부터 천사에게 자신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그 가정에서 일어날 일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마노아의 가정을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마노아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민족적인 동질성이나 통치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심으로 세상에 없던 민족을 만들어 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자신들이나 이방의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부합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들이 주도하려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려한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내가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자기에게도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사를 가장이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다시 그의 아내에게 보내심으로, 마노아 가정의 질서나 당시의 관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노아는 내가 낳을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도 그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자기 소관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아들은 나실인 규정을 지키고 그 아내는 술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마노아가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 대한 마노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은 구원자를 세우시려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구원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마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연히 내것으로 여겼던 권리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소외감, 상실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 준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리

마가복음 10:17-22을 읽겠습니다.

❖ 마가복음 10:17-22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내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 후반부에 있는 계명들을 나열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애처럼 유치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어린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부자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관리였습니다. 어딜가나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되고자하는 ‘큰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큰 자로 여기는 이 사람을 어린 아이로 만드시기 위해 먼저 자신이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는 착각과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를 착각과 교만으로 이끈 주된 요인인 재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주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구원은 자기가 규정을 준수하고 재물을 모음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사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심으로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나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내세우는 요소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중에 조수석에 타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운전을 왜 그렇게하냐, 브레이크 밟아라, 악셀 밟아라, 깜빡이 켜라.”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운전을 다른 사람한테 못 맡깁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차들이 다 저를 향해 돌진할 것 같고 벽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에 속도가 줄지 않으면 앞에 있는 차와 부딪힐 것 같아서 숨이 멎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훨씬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차를 운전할 때보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더 불안해 한다고 합니다. 차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지만 비행기에 타면 자기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안감, 소외감, 자괴감,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기뻐하라, 말기라

시편 37:1-11을 읽겠습니다.

❖ 시편 37:1-11

-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7절에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다, 내가 만들어 낸 악한 계획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노와 불평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우리가 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사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그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공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의 주인되심을 깨닫기 위해 천사로부터 소외당하고 아내에게 핀잔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과 허영심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부자가 예수님께서 요구받은 것처럼 가난해지거나 야곱이나 바울처럼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구 때문에 난감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부자에게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약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지난 주에 초콜렛을 먹다가 어금니 두개가 깨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초콜렛 사이에 돌덩어리를 섞어 놓았던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 아말감으로 때운 곳이 삭아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치과에 가서 세 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드릴로 어금니를 갈아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아이처럼 의사가 입 벌리라면 벌리고 다물라면 다물고 시키는대로 다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끔찍한 상황을 참아냈던 이유는 그렇게 안하면 더 아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인 저를 사랑까지는 안하더라도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큰 수술을 받으려면 전신마취를 하게 되는데, 전신마취는 사실상 잠깐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신체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의사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이유는 세 가지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 둘째는 의사는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의사에게는 나를 고쳐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말씀이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당하게 여기고 거부하거나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사만큼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주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감염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맞아도 확률만 낮출 뿐입니다. 이런 때일 수록 더욱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가난해지고 병약해지고 소외당하며 불안한 나날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증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마노아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주도권 다툼을 벌인 적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게 하셨나요?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셨거나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하셨거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사랑의 간섭하심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나요? 반대로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주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경험은 없나요?

3. 주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맡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